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선과 악 모두 쓸 줄 알아야 돼요

성태를 길러라 ②

정정이 제일 첫째 소식이고, 내 마음이 가라앉아, 눈하고 타협을 안 해, 귀하고 타협을 안 해, 헛바다하고 타협을 안 해, 그러면 내 마음이 그만 허공과 같이 환하단 말이죠. 그런데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여건을 톡 일으켜서 이런 일을 해 보겠다 저런 일을 해 보겠다. 또 색신은 내 의 그림자거든요. 하기 때문에 색신 살려야 되거든요. 이래서 회사에 나가겠다 장사를 하러 나가겠다 이래서 한 생각을 톡 일으키면은 그만 그대로 아무 실수 없이 그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도력은 벌써 문제가 다르죠, 법을 굴릴 수 있어.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악한 것을 굴려서 착한 것 만들 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부터. 그러나 나중에 차차 차차 이런 말을 늘상 해싸면은 나중에 그만 자기 자신도 어느 사이 모르게 알아버립니다. 악한 일을 굴려서 착한 일을 만들 줄 알아. 착한 일을 굴려서 악한 것을 만들 줄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하다 악하다 성품 하나지요? 성품 하나죠? 결과는 달라요. 그렇죠? 결과는 다르지만 성품은 하나 아니에요?

그러하니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착한 성품이 따로 있고 악한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 내가 공연히 마음을 그대 일으켜, 마음은 한나데 악하게 마음을 먹고 착하게 마음을 먹고 할 따름이예요. 그러나 성품은 하나거든요. 그러면 악한 걸 일으켜서, 악한 걸 굴려서 착한 걸 만들어서 무엇이 써먹겠느냐.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악함을 굴려서 착한 걸 만들고 착함을 굴려서 악한 걸 만들어, 굴러, 만들 줄 알아. 한쪽에 치우쳤다 말이야. 착하다 하면 악하다, 상대성이거든. 부처님은 상대성이 없어. 상대성 위에 솟 올라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악한 걸 쓸려면 악한 것도 해, 착한 걸 쓸려면 착하기도 해. 마음대로 해. 그러나 성현들은 착한 데 딱 들어앉아

있어. 거기서 징역살이하고 있어. 하하. 이것 참 우습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착한 걸 굴려서 악한 걸 만드는데 이걸로써 성현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고 누가 구할 거예요?

이거 말이 너무 엉뚱해 보셔 잘 끝이 들을런지 안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꾸 다지고 다지고 다져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법신자리,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바로 누리의 주인공이로구나. 여기는 성현이니, 악이니 선이니, 아무 것도 들어붙지 않는 자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또 착한 걸 굴려서 악을 만들어서 성현을 제도하고, 악을 굴려서 선한 걸 만들면 중생들을 제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

착한 성품 악한 성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일으키는 문제
선과 악 상대성에서 발생
부처님은 그 위에 존재

”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도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력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려고 하면은, 여기는 노소가 상관없이 남녀가 분별이 없고 여기는 인종이 분별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여기 무슨 놈의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늙은 것이 있고 젊은 것이 있겠어요? 요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도력을 갖다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걸 굴려서 착한 걸 만들어, 착한 걸로는 중생을 제도해. 그러니까 요 말이 착하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아니에요? 또 착한 걸 굴려서 악한 걸 만들어서 성현을 제도하고, 악한 걸 굴려서 착한 걸 만들어서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착하다. 선행을 했다. 성현들 이름. 지구가 생긴 뒤로의 성현들 이름 한 여남은 개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제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제도 누가 하겠느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공부 할 줄 모르면은 제도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성현이라고 떠받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제도할 겁니까.

이거 아무 것도 천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말이죠 웃습니다. 날 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니 성현들을 제도해?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저 사람들은 좋다 하는 데에, 선에다가, 착하다 하는 데에 딱 들어앉아 있거든요. 우리는 들어앉아 있지 않 해, 나 안 들어앉아 있습니다. 내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러하니 만약 선에 들어앉으려면 들어앉을 수도 있어. 선을 버릴려면 버릴 수도 있어. 악한 데 들어앉으려면 악한데 들어앉을 수도 있어. 악을 버릴려면 버릴 수도 있어.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실력이 없지만은 나는 그렇게 마음 가진 지가 오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한테는 별로 마... 하하하.

부처님께서야 굉장한 분이니까 존경 안 할 수 없지만은 이전 성현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때는 존경하라고 합니다. 중생보다는 낫지 않느냐 말이야. 중생보다 높으니 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서울서도 내가 몇 번 말했지만 그런 말 했습니다. 사실 이렇고 이렇다 말이야. 우리는 절대성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선이다 악이다 이거 상대성이거든. 상대성 위에 앉았어. 그 밑에 앉았어.

그러하니 벌써 선이다 하면 이거 성현들이고, 악이다 하면 이거 도치기 같은 사람들이니까 안 돼. 도치기라 해서 버릴 필요가 없어. 성현이라 해서 나는 관심을 안 가져.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러나 쓸 때 써먹는다 말이죠. 요것이 도력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정이 되지 안 해서 내 마음이 그만 해말속해. 가라앉지 안 해서는 도저히 이 도력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어떻습니까? 자, 법은, 어때? 그렇겠는가. 사실로 그래. 우리가 선도 쓸 줄 알고 악도 쓸 줄 알아야 되요. 물론 이거 보통 자리에 가서 이런 말 하면 까딱하면 사람들 버려버려요. 그러나 이 자리는 이런 말했자 버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벌써 상대성 안 알아 있지 않거든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대자대비 부처님 법 알리면 ‘보은 성취’

12. 보경회향문(普敬廻向文)

넷째, 당수대고(當受代苦).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 나간다. 다섯째, 내 몸뚱이가 톡 고기가 되어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인다. 널리 중생에게 이익을 베푼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여섯째에는 우리가 큰 원을 가져 모든 고에 당하고, 중생이 나와 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다 같이 원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

일곱째는 내 몸뚱이가 발심하고 내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법(法)이므로 이 세상 끝 다 하는 데까지 해나간다는 말. 자기의 몸뚱이가 법계(法界)로서, 결코 상대적으로 그가 이러므로 나는 이렇다. 그가 저만큼 하니 나도 이만큼 하는 그런 좁은 생각을 말 것. 발심을 저 진법계(眞法界)에 다하고, 법계가 다하고 허공이 다하고, 중생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크게 나가야 한다.

그러하여 나와 남이라는 구별이 없고 조금도 닮지 않고, 모든 중생의 고는 내가 받고, 모든 중생에게 항상 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발심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널리 공경하고 회향한다(普敬廻向)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넓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경제불(禮敬諸佛)부터 수순중생(隨順衆生)까지의 있는 바, 모든 공덕이란 것이 어디에 둘러지느냐 하면 진법계(眞法界), 허공계(虛空界), 일체중생(一切衆生)에게 돌려야 되고,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과 원은 또 얼마나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이 다하고 중생 없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내 행과 원은 다함이 없다. 이와 같이 하여 빈틈없는 의식이 지속하여 무유간단(無有間斷)하다. 조금도 쉴 사이라고 없이 우리의 몸과 입과 정신생활로서 결코 실증이 안 나고 환희로서 해나가는 것이다.

참으로 이런 대목은 놀랍다. 만약 모든 보살이며 우리들이 이와 같은 대의(大義)와 커다란 포부를 갖지 않았던들 이렇듯 큰 원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큰 원을 세워 수순(隨順)해서 자꾸 지내 놓고 보면 재미가 절로 나고 그 재미가 거듭하고 익어져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 우리들이 정편(正偏), 정도(正道)로 두루 가득히 퍼지고 바른 길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이것이

그 자체가 보현보살(普賢菩薩)의 행이 되고, 또 그 행이 자비의 바다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어질고 현명한 일을 널리 해나가면 비로소 아미타불에 귀의하고 보은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이 영위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널리 회향하는 것을 말할 진데 예경제불로부터 수순중생에 이르기까지 가진 바 공덕을 낱알이 다 회향하여 법계와 허공계와 일체 중생의 업이 다 하도록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을 얻게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행과 원을 닦아 나가기를 허공계에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도록 한다. 내 이 행원을 다하여 끝남이 없으며 생각마다 이어 나가 쉴 사이가 없다. 그리하여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서 이렇듯 큰 원을 세워 수행을 닦아 나가는데 오직 기쁨에 넘칠 뿐, 싫증이란 게 없다.

“

헌신하며 보살과 주는
부모님과 같은 부처님 은혜
스스로 믿고 타인에게 믿음주며
중생 제도하는 것이 ‘보은’

”

13. 보은계(報恩偈)

自信殺人難 難轉轉難
大悲傳佛法 眞成報佛恩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자기가 믿고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믿게끔 한다는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믿는 것도 잘 된다고 할 수 없는데, 더욱이 남을 가르쳐 믿도록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널리 중생에게 교화되어 전해지는 것이다. 전해지는 그것이 참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 보은을 성취하는 길이다.

“내가 부처님을 믿으며 또 사람들이 믿도록 가르친다. 어렵고 어려운 일. 사람들을 가르쳐 믿도록 한다. 대자 대비를 널리

돌아다니며, 교화하여 전한다. 참말이지, 이것은 부처님의 은혜 갚는 일. 은혜 갚는 일을 이룩한다.”

은혜 갚는 이야기가 낱지만 부처님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는 것은 큰 문제다. 이는 우리가 부모님을 두고 생각해보면 알 일이다. 첫째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고 부모에게서 몸을 받아 나온다. 어머니가 우리를 태중에서 열 달 동안 보호하고 있을 때의 마음이란 것을 생각해 보면 기막힌 고통의 연속이다. 자신께서 하고 싶은 일, 활동도 못하고 몸이 무거워 천근이나 만근이나 되고, 때로는 슬픈 생각도 들었다가, 별의별 생리적 고통이 다 마르게 마련이다. 이것은 회향수호은(懷耽守護恩)이라고 한다. 열 달 동안의 태중에서 이를 수호할 때의 고통이란 말로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달이 차 만삭이 되어 거의 사경에 도달한 몸이 찢어지는, 이를테면 생사의 고통을 겪고 아기가 태어난다. 나는 것이란 동시에 죽는 것과 꼭 같은 고통이 따른다. 낳은 뒤에는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나 낳는다는 소리를 듣고는, 아이구 언제 나는 엄마가 되었구나, 그래 몸은 튼튼한가, 하고 궁금해 하며 이제까지의 모든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는다는 인고고담은(艱苦吐甘語)이다. 쓴 것은 자신이 삼키고 단것을 내어다 자식을 준다.

또 아이는 누워서 풍 오줌을 싸다. 저저분하다. 진자리에 부모가 눕고 마른 자리에 자식을 다시 같이 눕힌다. 그리고 젖을 먹여 키우고, 코고, 오줌이고 싸며는 모두 기저귀며, 옷이며, 더럽혀 놓은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 준다. 출입을 하는데도 자식이 배가 고프면 데리고 곧 찾아온다. 자식을 위해서는 심지어 나날 일까지 한다. 자식이 병이 들었다. 저걸 어떻게 고쳤는지, 닭을 잡아 꿈을 해 준다.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일을 좋아 할 수는 없지만 이렇듯 염려하여,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것 인지 끝내 염려하여 눈을 못 감는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장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임이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죽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원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